

352-1

톨스토이는 사람들의 감정을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즉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예술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127쪽 <자료 플러스>

톨스토이 자료 : 진짜 예술을 가짜 예술과 구별하기 위한 확실한 특징은 예술의 감염성(感染力)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경험하면서 그 작가와 공감(共感)하고 그 작품을 감상한 다른 사람들과도 공감한다면 그 작품은 틀림없는 예술품이다. 하지만 만일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합일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다.

해설 : 톨스토이에 따르면 예술은 사람들을 하나의 같은 감정으로 결합해 줌으로써, 개별 인간과 인류 전체의 삶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소통의 수단이다.

352-3

와일드는 예술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 즉 '심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미주의에서는 예술이 예술 자체, 즉 심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아예 그 무엇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6 수능특강 128쪽 <자료 플러스>

해설 : 와일드는 예술이 도덕이나 정치 등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예술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9쪽 4번 문항

④ 와일드는 예술 지상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예술 그 자체, 즉 미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352-6

순자는 백성들에게 음악을 권장하는 것이 나라의 부국강병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132쪽 2번 문항

순자 제시문 中 : 음악이 바르고 반듯하여 화평하면 곧 백성들은 화합하며 빛나가지 않게 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곧 백성들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백성들이 화합하고 질서가 있으면 곧 나라의 군대는 강성하고 성(成)이 견고해져 적국이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
ㄴ. 순자 :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O)

352-7

플라톤에 따르면 사악한 음악은 인간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음악을 선별하여 올바른 음악만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1쪽 3번 문항

③ 플라톤은 예술이 윤리적 가치를 지녔는지의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352-9

플라톤은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 즉 미의 이데아를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이데아는 어찌든 이데아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 이데아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26 수능특강 132쪽 3번 문항

④ 플라톤 :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을 창조해야 한다. (X)

353-3

칸트는 미적 판단의 형식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형식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133쪽 5번 문항

ㄷ. 칸트 : 미의 판단 형식에서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O)

21 9월 모의평가 6번 문항

① 칸트 :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O)

353-4

칸트는 미적 판단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주관과 관계없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1쪽 5번 문항

- ㄱ. 칸트는 미적 판단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미적 판단이 보편적 성격을 띠 수 있다고 보았다.
- ㄴ. 칸트는 미적 판단이 본질적으로 주관적 판단이라고 보았다.

24 수능 10번 문항

- ② 칸트 :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X)

353-7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대중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모두 약화시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상상력을 증대한다’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353-10

순자뿐만 아니라 묵자 역시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즐거움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묵자는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오히려 사회를 해롭게 하고 백성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보는 반면, 순자는 올바른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백성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묵자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134쪽 2번 문항

- ㄴ. 순자와 묵자 :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354-1

칸트에 따르면 도덕 판단과 미적 체험은 모두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 판단과

미적 체험의 형식적 유사성 중 하나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3쪽 3번 문항

- ④ 칸트는 미적 체험이나 도덕적 행위 모두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354-4

톨스토이는 도덕주의 사상가로, 예술의 목적이 선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선(善)이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특강 136쪽 6번 문항

- ㄱ. 톨스토이 : 예술의 목적을 선(善)이 아닌 미적 가치의 지향에 두어야 한다. (X)

355-1

순자는 올바른 음악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만 간사하고 사특한 음악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므로, 모든 음악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1쪽 2번 문항

- ㄷ. 순자는 간사한 음악은 인간의 성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음악을 권장한 것은 아니다.

355-6

공자뿐만 아니라 묵자 역시 음악이 바람직한 공동체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자는 음악이 바람직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묵자는 음악이 오히려 바람직한 공동체 실현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묵자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355-8

353-4 해설 참고

356-3

칸트에 따르면 미적 판단은 이해 관심, 즉 이익과 손해에 대한 관심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애초에 미적 판단은 이익과 손해에 대한 무관심, 즉 무관심적 태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3쪽 4번 문항
ㄷ. 칸트는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형식에 달려 있으므로 이해 관심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았다.

21 9월 모의평가 6번 문항
② 칸트 :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진다. (O)

356-6, 356-8

순자는 올바른 음악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만 간사하고 사특한 음악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므로 음악에 대한 사회적 선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55-1 해설 참고

356-9

목자와 플라톤 모두 사회적 효용을 배제하고 음악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목자는 음악이 사회적 효용을 저해하므로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플라톤은 음악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정화하고 사회를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적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9쪽 2번 문항
ㄴ. 플라톤은 음악이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효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356-10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주의 사상가로, 예술의 본질은 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모방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88쪽 3번 문항
ㄱ. 아리스토텔레스 : 음악은 예술의 본질인 미적 가치의 실현에만 전념해야 한다. (X)

357-3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적 창작 행위는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는 사물을 다시 한 번 모방하는 행위, 즉 모방에 대한 모방 행위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사물을 모방하는 행위가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완성 88쪽 4번 문항
③ 플라톤 : 예술적 창작 행위는 사물의 모방이 아닌 참된 진리를 구현하는 행위인가? (X)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9쪽 4번 문항
③ 플라톤은 침대의 비유를 통해 회화나 조각 등 조형 예술은 침대의 이데아가 아니라 그것을 모방한 목수의 침대를 모사한 행위라고 보았다.

357-4

와일드는 심미주의 사상가로, 예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의 아름다움에 따라 성립할 뿐이며, 사람들의 만족도에 따라 예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88쪽 4번 문항
⑤ 와일드 : 예술 작품의 가치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만족 정도에 비례해 성립하는가? (X)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9쪽 4번 문항
⑤ 와일드는 예술가의 행위가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예술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357-8

톨스토이는 예술의 본질, 즉 공통된 감정의 유발이 예술가의 경험에 의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89쪽 5번 문항
ㄹ. 톨스토이 : 예술의 본질은 예술가의 경험이 아닌 순수한 관념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X)

358-3

정약용에 따르면 음악은 올바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동시에 백성들을 도덕적인 길로 이끈다는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0쪽 6번 문항

⑤ 정약용은 예악(禮樂) 사상에 기초해 음악은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효용과 유익함을 지닌다고 보았다.

358-4

칸트는 미가 도덕성의 상징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미적 체험은 도덕성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칸트는 예술이 도덕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예술이 반드시 도덕성 신장과 무관해야만 한다고까지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칸트가 보기에 도덕과의 형식적 유사성 때문에 도덕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미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도덕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90쪽 8번 문항

① 칸트: 미는 도덕성의 상징일 뿐 도덕성의 신장과는 무관하다. (X)

358-6

와일드는 심미주의 사상가로, 예술의 심미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의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0쪽 8번 문항

③ 와일드는 작품에 표현된 도덕적 가치에 따라 미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358-8

칸트는 미가 도덕적 이상의 모방에 의한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미가 도덕적 이상, 즉 이데아의 모방에 의한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덕주의 사상가 플라톤입니다.

다. 칸트는 그저 도덕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미가 결과적으로 도덕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뿐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0쪽 8번 문항

⑤ 칸트와 와일드 모두 도덕적 이상의 모방에 의한 영혼의 조화를 미의 목적으로 보지 않았다.

359-1, 359-5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표준화와 획일화를 통해 심미적 소재의 빈곤화를 가속한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0쪽 9번 문항

③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끊임없는 획일화를 심화시켜 심미적 소재의 빈곤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359-3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인간의 충동을 승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억압한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0쪽 9번 문항

④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인간의 충동을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며 불구화한다.

359-8

목자는 음악의 효용이 순수한 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자에 따르면 음악은 애초에 백해무익하며, 효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359-9

플라톤과 목자 모두 국가와 구성원들 중 어느 한쪽만이 음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플라톤은 조화로운 음악이 국가 전체와 구성원들 모두에 이롭다고 보고, 목자는 음악이 국가 전체와 구성원들 모두에게 해롭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29쪽 2번 문항

ㄷ. 플라톤은 음악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의 이익과 구성원들의 이익을 분리해 보지 않았다. 목자는 음악이 위로는 성왕의 사적에 부합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

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359-10, 360-1

목자는 모든 음악이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효용을 지니지 못하므로 모든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플라톤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효용을 지니지 못하는 음악, 즉 공동체에 도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음악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60-7

순자에 따르면 소인과 군자는 모두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자는 음악을 통해 올바른 즐거움을 얻는다면, 소인의 즐거움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113쪽 7번 문항

순자 제시문 中: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의(道義)를 얻어서 즐거워하고, 소인은 음악을 통해 욕망을 충족해서 즐거워한다. 도의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겁되 음란하지 않다.

360-8

칸트에 따르면 미적 즐거움은 이성과 감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즐거움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2쪽 12번 문항

② 칸트는 미적 즐거움을 인간만 느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거승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감각적 즐거움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26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칸트 제시문 中: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되지만,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360-9

와일드는 예술가가 도덕을 예술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와일드는 예술을 도덕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할 뿐, 예술의 소재로 도덕적 소재를 활용하는 것까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2쪽 12번 문항

③ 와일드는 예술이 도덕적 교훈을 담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지만, 도덕을 예술의 소재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361-3

356-9 해설 참고

361-5

플라톤은 음악을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플라톤이 생각하는 음악의 사회적 효용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영혼의 도덕적 정화에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6쪽 9번 문항

⑤ 플라톤은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안 되며, 윤리적이고 지적인 이상을 촉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 음악의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361-6

순자는 음악이 순조로운 기운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반역의 기운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355-1 해설 참고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9쪽 4번 문항

ㄱ. 순자는 간사한 음악이 반역의 기운을 생겨나게 할 수 있지만, 올바른 음악은 순조로운 기운이 일어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361-8

순자와 목자 모두 음악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도리의 실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순자는 음악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반면, 목자는 음악이 사람들에게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9쪽 4번 문항

르. 순자는 올바른 음악은 법과 규율을 잘 지키도록 영향을 주지만 사악한 음악은 이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목자는 왕궁대인이 음악을 즐기게 되면 국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고, 농부가 음악을 즐기게 되면 경작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361-9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와일드 역시 예술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예술의 목적이 선의 실현과 신과 사랑의 세계 건설이라면, 와일드가 생각하는 예술의 목적은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입니다.

362-4

심미주의와 달리 도덕주의에서는 심미적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덕주의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술이란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에서는 심미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도덕적 가치가 심미적 가치에 우선한다고 봅니다.

362-10

칸트에 따르면 미적 체험은 개인의 이해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무관심적 태도에 기반하므로,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26 수능특강 129쪽 <자료 플러스>

해설 中 : 칸트는 미적 체험이나 도덕적 행위는 모두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363-1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예술은 자연을 능동적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모방된 것을 보고 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예술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방하므로, 예술의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특강 129쪽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 자료 中 : 모방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인간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한 재현에 쾌감을 느낀다. 다음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실물을 보기에 괴로운 존재들도 매우 정확하게 그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배우면서 느끼는 살아 있는 쾌감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일지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자연의 모방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방은 대상에 대한 수동적인 모방을 넘어 대상의 아름다움을 실제보다 한층 돋보이게 하는 능동적인 모방을 의미한다.

363-2

353-4 해설 참고

363-7

칸트에 따르면 미와 선은 기본적으로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며, 예술과 도덕의 영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본래는 다른 개념인 미와 선이 상호 간에 형식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미와 선은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을 뿐입니다.

26 수능특강 135쪽 4번 문항

칸트 제시문 中 : 따라서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둘 다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에서 동일하므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363-8

칸트에 따르면 미적 즐거움은 주관적인 감성의 영역에 인간을 구속시키지 않으며, 감성적인 것에서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26 수능특강 135쪽 4번 문항

르. 칸트 : 미적 즐거움은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O)

364-2

와일드에 따르면 예술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며, 예술은 그 자체로 순수한 심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364-6

363-1 해설 참고

364-10

공자와 달리 목자는 모든 음악의 사회적 효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65-2

톨스토이에 따르면 난해하여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은 사람들의 감정적 결합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26 수능완성 85쪽 <자료와 친해지기>

해설 中 : 톨스토이는 진짜 예술과 가짜 예술을 구분하였다. 그는 진짜 예술은 형제애를 불러일으키고 어린아이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너무 난해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거나 부자와 빈자의 분열을 초래하며 자만심,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예술은 가짜 예술이며 나쁜 예술이라고 보았다.

365-4

톨스토이는 예술의 미적 가치가 사물의 실제적 묘사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85쪽 <자료와 친해지기>

톨스토이 자료 中 : 그와 반대로, 대상이 아무리 시적이거나 진짜를 닮았거나 효과적일지라도 아니면 흥미를 돋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만일 다른 보통 감정과는 구별되는 전혀 독자적인 기쁨의 감정, 즉 다른 사람(작가)이나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청중, 관객)과 정신적으로 합일하는 감정을 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술품이 아니다.

365-6

톨스토이에 따르면 예술은 행복에 필요한 개인의 감정을 고양하는 동시에 필요 없는 감정은 추방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85쪽 <자료와 친해지기>

해설 中 : 톨스토이는 예술을 통해 현세대 인간이 과거 시대와 소통할 수 있고, 개인의 행복에 필요한 감정을 고양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추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술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365-8, 365-9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어떤 차이나 개성이 있는 듯 보이는 문화 상품을 가져오지만, 결국 그것은 새로움을 선전하며 획일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에 불과하고, 대중문화는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차이나 개성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6 수능완성 86쪽 <자료와 친해지기>

해설 : 아도르노는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로서 대중문화는 미적 가치가 아닌 이윤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이윤을 창출한 작품을 모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표준화 과정에서 대중이 식상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차이와 개성을 강조하지만 실상 이는 소비자를 분류하고 조직하여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개성이 아닌 사이비 개성이라고 주장하였다.

365-10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타고난 성정이 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예와 악이 백성

의 타고난 성정을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교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66-2

목자도 음악이 백성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인정합니다. 353-10 해설 참고

366-3

플라톤은 도덕주의 사상가로, 작품의 가치가 사회의 도덕적 규준에 따라 평가되고 선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사회의 규준이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366-6, 366-7

벤야민에 따르면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작만이 가질 수 있는 현존성의 가치, 즉 ‘아우라’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은 더 이상 종교 의식 중심의 예술이 아니라 전시 가치 중심의 예술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복제품의 생산으로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366-8

칸트에 따르면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사이에는 각자의 독자성이 존재합니다. 363-7 해설 참고

366-10

순자 역시 음악의 즐거움이 백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55-1 해설 참고, 360-7 해설 참고

367-1

톨스토이는 예술 작품이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감정으로 통일하고 결합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52-1 해설 참고

367-4

칸트는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 즉 미적 판단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지만 보편화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본질적으로 비주관적’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353-4 해설 참고

367-7

순자는 음악을 즐기도록 하는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봅니다.

26 수능완성 87쪽 1번 문항

순자 제시문 中 : 음악이란 즐기는 것[樂]이다. 사람의 감정으로서의 없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에는 음악이 없을 수 없다. 즐거우면 곧 그것이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사람의 도(道)인 목소리와 행동과 본성의 작용 변화가 모두 여기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에는 즐거움이 없을 수 없고, 즐기면 곧 겉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가 없고, 겉으로 표현되어 올바른 도리에 맞지 않으면 곧 혼란이 없을 수가 없다. 옛 임금들께서는 그런 혼란을 싫어하여 음악을 제정하여 이끌어 주었다.

367-2

순자는 음악을 도덕적 의로움보다 이로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야말로 음악을 이로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67-4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 종교적 지향성을 타고나며, 일상의 세속적인 의례에도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으므로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19 수능 7번 문항

엘리아데 제시문 中 :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367-5, 367-7, 367-8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인은 사물의 기능 혹은 사물의 실제적 유용성이 아니라, 사물이 주는 사회적 이미지, 즉 기호를 소비합니다. 즉 현대인은 소비 활동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사물의 기호에 이끌려서 소비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드리야르가 보기에 현대인이 재화에 대한 욕구에 따라 소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화에 대한 욕구가, 그 재화의 실제 기능보다는 재화가 담고 있는 ‘기호’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143쪽 4번 문항

- ① 보드리야르 : 현대인은 소비 활동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다. (O)
- ③ 보드리야르 : 현대인은 사물 자체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한다. (X)
- ④ 보드리야르 : 현대인은 재화에 대한 욕구가 아닌 동조 의식에 따라 소비한다. (X)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5쪽 4번 문항

- ①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인은 사물이 지닌 사회적 위세와 가치에 지배받으며 소비하게 된다.
- ②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인은 사물의 사용 가치를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소비를 한다.
- ④ 보드리야르는 사물에 대한 욕구도 소비의 요인이라고 보았다.

368-3

볼노브에 따르면 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내부 공간입니다.

26 수능특강 143쪽 3번 문항

- ③ 볼노브 : 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독립적 거주 공간이다. (X)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5쪽 3번 문항

- ③ 볼노브는 거주 공간인 집을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368-8, 368-10

퀼은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을 주장하지, 개별 종교의 정체성을 아예 버리거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쳐 하나의 단일 보편 종교를 세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370-1, 370-2

지멜에 따르면 상위 계층의 유행에 하위 계층이 동화되는 순간, 상위 계층은 그 유행을 버리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게 되며, 하위 계층은 다시 그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행은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26 수능특강 138쪽 <자료 플러스>

지멜 자료 中 : 즉 유행은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동화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준다.

370-4

지멜에 따르면 유행이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갖는 귀속 의식의 결과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유행은, 물론 동조 의식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과 구분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차별화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수능특강 145쪽 1번 문항

- ④ 지멜 : 유행은 같은 사회의 성원으로서 함께 갖는 귀속 의식의 결과일 뿐인가? (X)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6쪽 1번 문항

- ④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상류층이 낮은 계층과 구분하려는 차별화 욕구에서 발생한다.

370-7, 370-9

베블런에 따르면 과시적 소비의 성향은 부유한 계층뿐만 아니라 빈곤한 하위 계층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심지어는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물질적 결핍, 즉 빈곤함을 감수하고 과시적 소비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바로 베블런의 주장입니다.

26 수능특강 146쪽 4번 문항

- ② 베블런 : 여가와 과시적 소비는 부유한 계층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이다. (X)
- ⑤ 베블런 : 개인이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적 결핍을 견뎌 내는 경우는 없다. (X)

26 수능완성 92쪽 <자료와 친해지기>

베블런 자료 :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들 기준을 되도록 최대한 따르는 것이 모든 하류 계급의 의무가 된다.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명성 획득의 근거는 재력이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 소비이다. 이 두 방법은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소비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370-8

베블런에 따르면 명성을 얻기 위한 소비, 즉 과시 소비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돈과 시간의 낭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명성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26 수능특강 146쪽 4번 문항

- ③ 베블런 : 명성을 얻기 위한 소비는 경제적 효율성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다. (X)

370-10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은 세속적인 삶에서 자연물을 통해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체험하며 절대적 실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현은 인간

이 현실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26 수능특강 148쪽 8번 문항

- ① 엘리아데 : 인간이 세속적 삶에서 절대적 실재를 체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X)

371-1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 속의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며, 언제든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26 수능특강 148쪽 8번 문항

- ② 엘리아데 : 종교적 인간은 자연 속의 돌이나 나무를 단순히 자연물로 여기지 않는다. (O)

371-2, 371-3

엘리아데에 따르면 자신을 오직 역사의 주체로 보는 인간은 비종교적 인간으로, 비종교적 인간은 일체의 성스러움을 거절합니다. 즉 비종교적 인간은 애초에 성스러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7쪽 8번 문항

-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비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거룩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371-6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사물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사물이 주는 사회적 이미지, 즉 기호를 고려하여 소비한다고 봅니다.

371-8

368-8, 368-10 해설 참고

371-10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주택 수의 부족이 아니라, 사유와 성찰의 부족에 있습니다.

26 수능특강 정답과 해설 46쪽 3번 문항

- ④ 하이데거는 거주가 단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⑤ 하이데거는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주택 공급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372-1

베블런에 따르면 과시 소비 발생의 주된 원인은, 다른 계층을 모방하려는 부유층의 욕구가 아니라, 다른 계층으로부터 구분되려는 부유층의 욕구, 그리고 그러한 부유층을 모방하려는 하위 계층의 욕구에 있습니다.

372-3

370-10 해설 참고

372-4, 372-5, 372-7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의 역사는 원시적인 성현에서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성스러움의 일관적인 연속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물 속에서 드러나는 성스러움, 즉 자연 대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성현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성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93쪽 <자료와 친해지기>

엘리아데 자료 中 : 종교의 역사는 많은 성현, 즉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원시적인 성현에서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해설 中 :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보는 엘리아데는 종교의 역사를 성스러운 여러 실재의 현현으로 파악하였다.

20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엘리아데 제시문 中 :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는 원시적인 성현에서부터 예수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스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372-8

베블런에 따르면 과시 소비는 물론 물질적 욕구의 영

향도 받겠지만, 명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신적 욕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정신적 욕구가 아닌’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26 수능완성 95쪽 3번 문항

베블런 제시문 中 : 현대 사회에서 의복이라는 상품이 지닌 가치는 단순히 그 옷을 입는다는 기계적 유용성보다 유행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명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의복에 관한 욕구는 분명히 한층 ‘고급스러운’ 또는 정신적 욕구이다.

373-3

368-8, 368-10 해설 참고

373-4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스러운 것의 정의 자체는 그것이 속된 것과 대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대조되는 두 개념, 성과 속은, 현실에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97쪽 7번 문항

엘리아데 제시문 中 : 성스러운 것의 정의는 우선 그것이 속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373-8, 373-9, 374-1, 374-2, 374-3, 374-4

하이데거에 따르면 건축함의 목표는 거주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주함은 건축함에 앞서서, 즉 건축함에 선행하는 목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함은 거주함으로 연결되고, 거주함은 곧 건축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32쪽 8번 문항

문제분석 中 : 또한 진정한 건축물은 거주함을 그것의 본질 속으로 आरो새겨 놓으며 거주함을 구현한다고 보았다. 그(하이데거)는 건축함의 본질은 거주하게 함이고, 우리는 거주할 능력이 있을 때만 건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하이데거에 따르면 건축함은 본래 거주함이며, 거주함이란 죽을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존재 또는 체류하는 방식이다.

ㄷ. 하이데거에 따르면 건축함은 거주함을 목표로 삼으므로 거주함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건축함에 앞서는 목적이 된다.

ㄹ. 하이데거는 거주함과 건축함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라고 보았다.

374-6, 374-7

베블런에 따르면 부를 지속적으로 획득한다고 해서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즉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드러냄으로써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26 수능완성 120쪽 14번 문항

베블런 제시문 中 : 가치 있는 재화를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유한계급이 명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부유함을 충분히 과시할 수 없게 된다.

21 수능 17번 문항

베블런 제시문 中 :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③ 베블런 :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X)

374-9

베블런에 따르면 타인과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동기여서 때로는 물질적 궁핍도 견뎌내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보존 본능에

우선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블런은 대부분의 빈곤층은 물질적 궁핍을 감수하고 과시 소비를 하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 소비를 하다가 굶어 죽을 정도로(자기 보존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과시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블런이 보기에 타인과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적 동기입니다.

21 수능 17번 문항

베블런 제시문 中 :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응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낼 것입니다.

⑤ 베블런 :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X)

375-1

엘리아데는 애초에 성과 속이 단절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성과 속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20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② 엘리아데 :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

375-3

372-4, 372-5, 372-7 해설 참고

375-5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이라고 해서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인간이 보기에 신은 자연 너머에 존재하는 실재이자, 자연을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의 성스러움이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375-6

베블런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되어도, 사람들의 과시 소비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시 소비는 타인들과 비교하고자 하는 성향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수능완성 정답과 해설 42쪽 14번 문항

⑤ 베블런은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한다고 해서 구성원의 과시 소비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375-9

베블런에 따르면 유한계급은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함으로써, 명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과시 소비를 합니다.

375-10

370-7, 370-9 해설 참고

376-1

베블런에 따르면 과시적 낭비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보존 본능까지 버려가며 과시적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74-9 해설 참고

376-6

베블런에 따르면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최하위 계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칩니다. 370-7, 370-9 해설 참고

376-7

371-2 해설 참고

377-3

373-4 해설 참고, 375-1 해설 참고

377-4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스러운 자연물, 즉 성스러움이 드러난 자연물이 존경받고 숭배받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물이라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이 성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26 수능완성 93쪽 <자료와 친해지기>

해설 中 : 그(엘리아데)는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 숭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그것들이 성스러운 것, 달리 말해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377-6, 377-7, 377-10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개인의 사회에 의존하고 싶은 (쉽게 말하면, 사회의 트렌드에 편승하고 싶은) 욕구와, 개인의 차별화 욕구(쉽게 말하면, 무언가 특별해 보이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26 수능특강 138쪽 <자료 플러스>

해설 中 : 지멜은 유행이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377-8

지멜에 따르면 상류 계층은 하류 계층과 차별화되려는 경향으로, 반면 하류 계층은 상류 계층을 따라가려는 방향으로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므로, 유행이 모든 계층에 언제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378-1

볼노브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는 타고나는 본능이 아니며, 영혼을 쏟아붓는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22 수능 16번 문항

② 볼노브: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O)

378-6

엘리아데에 따르면 물론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지향성 때문에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종교적 인간이 성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종교적 인간은 의식적으로는 일체의 성스러움을 거부하므로, 성현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종교적 인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성스러운 종교적 행동을 수행할 뿐입니다.

378-7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이 탈신성화된 대상으로서의 자연인 것은 아닙니다. 탈신성화되었다는 것은 신성화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즉 신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378-9

베블런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언제나 과시 소비와 과시 여가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는 과시 소비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76-1 해설 참고

379-3

베블런에 따르면 재화의 상품 가치는 언제나 재화 자체의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에 따라 재화의 상품 가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79-4

베블런에 따르면 유한계급과 하위 계층 모두 타인과의 경쟁적인 비교 성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과시 소비의 성향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379-7

엘리아데에 따르면 성스러움은 신과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현의 인식을 통해서도 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370-10 해설 참고

380-1

370-1, 370-2 해설 참고

380-4

367-5, 367-7 해설 참고